

九鍼歌 譯釋

손인철^{1,2} · 안성훈^{1,2} · 김유리¹ · 양승범¹ · 김재효^{1,2}

¹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²한국전통의학연구소

A Translation and Annotation for Nine Classical Needles in Rhymes

In Chul Sohn^{1,2}, Seong Hun Ahn^{1,2}, Yu Lee Kim¹, Seung Bum Yang¹, Jae Hyo Kim^{1,2}

¹Dept. of Meridian & Acupoint,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²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nine classical needles understood easily through interpreting Nine Classical Needles in Rhymes.

Methods : The principle of classification and clinical application of Nine Classical Needle was sorted out referring to 「The beginning of Nine Classical Needles in Rhymes」 and 「The prescription and treatment of Nine Classical Needles in Rhymes」 which is the chapter of 『Golden Mirror of Medicine』.

Results & Conclusions : The Nine Classical Needles, which were designed to get harmonious interaction between human beings and the nature, have been representative medical appliance in Korean Medicine. The needles consist of shear needle, round-pointed needle, spoon needle, lance needle, stiletto needle, round-sharp needle, filiform needle, long needle, and big needle. Nine Classical Needles in Rhymes was formed in a poem format to help us easily memorize the essential contents of Nine Classical Needles. 「The beginning of Nine Classical Needles in Rhymes」 dealt with the reasons of making needles and organization principles about Nine Classical Needles. 「The prescription and treatment of Nine Classical Needles in Rhymes」sorted main treatment applications of nine needles, helping understand needles as medical appliance.

Key words : Nine Classical Needles, Nine Classical Needles in Rhymes, acupuncture, traditional medicine

1. 서 론

九鍼歌는 九鍼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도록 요점을 간추려서 만든 가결(歌訣)을 말한다. 九鍼歌는 『醫宗金鑑』^①에 「九鍼原始法歌」와 「九鍼主治法歌」

라는 이름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 중 「九鍼原始法歌」는 구침이 나오게 된 근원을, 「九鍼主治法歌」는 九鍼의 종류별 주치를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다.

九鍼^②은 한의학의 전통적 의료기구로서, 자연과 인간의 상응관계를 밝히는 천지의 대수(大數)에 바탕을 두고, 九鍼이 가지는 각각의 主治와 形態에 따라 서로 모양이 다른 특성을 살린 9종의 鍼을

· Corresponding author: In Chul Sohn, Department of Meridian & Acupoint,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344-2, Sinyoung-dong, Iksan 570-749, Korea
Tel: +82-63-850-6448, Fax: +82-63-857-6458
E-mail: ichsohn@wku.ac.kr

· Received September 7, 2012, Revised September 19, 2012.

Accepted September 20, 2012

This paper was supported by Wonkwang University in 2011(to Sohn IC).

① 吳謙等編, 『醫宗金鑑·上,下篇』, 북경 : 인민위생출판사, 1996 : 1-2346.

② 楊維傑編, 『黃帝內經譯解(靈樞)·九鍼論 第七十八』, 서울 : 成輔社, 1980 : 574.

말한다. 『素問·鍼解』^③에는 “虛하고 實한 것을 제 대로 치료하려면 각각 그 침에 마땅한 적응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9가지의 鍼이 있어야만 한다.”고 하여 九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九鍼에 대한 연구로는 정 등^④은 九鍼에 관한 研究를, 白 등^⑤은 『黃帝內經』의 九鍼과 官鍼 개념을 문헌연구를 통해 보고하였고, 손 등^{⑥,⑦}은 九鍼의 형태와 용도 및 ‘九鍼歌를 통해 본 구침의 이해’에 대해 보고하였으나 九鍼主治法歌를 중심으로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九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九鍼의 핵심을 잘 정리한 九鍼歌를 찾았고, 그 중 『醫宗金鑑·刺灸心法要訣』^⑧의 「九鍼原始法歌」과 「九鍼主治法歌」에 나온 九鍼歌에서 본문의 註에 대한 譯釋과 九鍼의 임상응용 등을 문헌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재료 및 방법

1. 九鍼歌는 『醫宗金鑑·刺灸心法要訣』^⑧의 九鍼原始歌와 九鍼主治法歌를 중심내용으로 하였다.

2. 九鍼에 대한 각 내용은 『黃帝內經』중의 九鍼에 대한 각종 문헌의 해석을 중심으로 설명하였고, 필요부분은 주석 각주 처리하였다.

3. 「九鍼原始歌」는 「刺灸心法要訣」의 원문에 대한 字句解 및 校勘을 고찰토록 하였다.

4. 「九鍼主治法歌」의 字句解는 『黃帝內經』과 『한의학사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해석은 『東醫寶鑑』과 『중국침구학술대강』을 참고하였다.

5. 「九鍼主治法歌」에서의 九鍼에 대한 설명은 『醫宗金鑑』의 「九鍼式圖」내용을 중시하였다.

6. 九鍼 모양에 대한 그림은 『醫宗金鑑·刺灸心法要訣』의 「九鍼式圖」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

7. 九鍼의 임상응용은 『黃帝內經』과 『中國鍼灸學術大綱』^⑩을 참고하였다.

8. 『東醫寶鑑·鍼灸篇』의 「製九鍼法」에 있는 九鍼內容을 「九鍼主治法歌」에 정리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九鍼原始歌

九鍼原始歌^①는 九鍼의 구성원리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原文]

九鍼因何而有名，原于天地大數生，始于一而終于九，天地人時音律星，風野九九八十一，鍼應其數起黃鐘，皮肉筋脈聲陰陽，齒氣九竅關節通。

[字句解 및 校勘]

1) 九鍼

九鍼이란 한의학의 전통적 의료기구로서, 다양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 형태와 용도를 달리한 鍼具의 총칭이다. 九鍼은 천지자연의 일반적인 규율(大數)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一에서 시작하여 九에서 끝난다. 따라서 이러한 천지자연의 규율인 天地의 大數에 근거하여 九鍼이라 한다^②.

③ 楊維傑編, 『黃帝內經譯解(素問)·鍼解篇』, 서울: 成輔社, 1980: 392. “虛實之要, 九鍼最妙者, 爲其各有所宜也”.

④ 정기진, 조현석, 윤종화, 九鍼에 관한 研究, 대한기공의학회지 1998: 2(2): 185-199.

⑤ 白裕相, 金度勳, 『黃帝內經』의 九鍼과 官鍼 개념에 대한 小考,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8: 21(2): 101-12.

⑥ 손인철, 김재효, 권오상, 김유리, 안성훈, 九鍼의 형태와 용도에 대한 문헌연구, 경락경혈학회지, 2011: 28(1): 157-69.

⑦ 손인철, 안성훈, 김유리, 양승범, 김재효, 醫宗金鑑 刺灸心法要訣 중의 九鍼歌를 통해본 九鍼의 이해, 한국전통의학회지, 2010: 18(2): 119-34.

⑧ 吳謙等編, 『醫宗金鑑·下篇』(의종금감 권 79),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96: 2085-89.

⑨ 吳謙等編, 『醫宗金鑑·下篇』(의종금감 권 79), 위의 책: 2085-89.

⑩ 黃龍祥, 『中國鍼灸學術大綱』, 서울: 법인문화사, 2005: 1002-08

⑪ 吳謙等編, 『醫宗金鑑·下篇』(의종금감 권 79), 앞의 책: 2085.

2) 天地大數

천지자연의 규율로 一은 天을, 二는 地를, 三은 人을, 四는 時를, 五는 音을, 六은 律을, 七은 星을, 八은 風을, 九는 野를 본받아 만들어졌다(九鍼者 天地之大數也 始於一以終於九. 故曰 一以法天 二以法地 三以法人 四以法時 五以法音 六以法律 七以法星 八以法風 九以法野).¹²⁾

3) 黃鐘

‘六律의 하나로, 古代의 音律을 矯正하던 一種의 樂器이다. 대나무를 활용해 만드는데 길이는 九寸이고, 每寸은 아홉 개의 기장을 縱으로 늘어놓은 길이에 해당하므로 九寸은 八十一個의 기장을 縱으로 세워놓은 길이가 된다. 九鍼이 이 數字에 상응하는 것은 그 변화가 매우 많아서 여러 종류의 질병에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詳考하면 縱黍는 바로 黍粒의 길이이다. 옛날에는 기장(黑黍)으로 分寸을 確定하고 이를 도량형의 표준으로 삼아 音律을 制定하였다. 기장 一粒의 縱斷길이가 一分이 되고 九分이 寸이 되니, 기장 九粒의 直徑을 이으면 一寸이 되는 것이다. 淮南子 天文訓 에 ‘一이 二를 낳고 二가 三을 낳고 三은 萬物을 낳는다. 天地의 三個月이 一時가 되니 三이 萬物에 參與하면 三三은 九가 되므로 黃鐘의 律이 九寸이 되는데, 宮음이 이를 조절하는 것이다. 여기에 九를 곱하면 九九는 八十一이 되기 때문에 黃鐘의 數字가 수립되게 된다. 黃色은 土德의 색이고, 鐘은 氣運이 심어진 것이다.’¹³⁾

4) 皮肉筋脈聲陰陽, 齒氣九竅關節通

인체의 皮·肉·筋·脈·聲·陰陽·齒·氣·九竅關節을 말한다. 鍼의 數를 여기에 대응하고 사람의

身形 또한 이에 응하니, 인체의 皮膚는 天에 응하고, 肉은 地에 응하며, 血脈은 人에 응하고, 筋은 時에 응하며, 音聲은 五音에 응하고, 陰陽이 氣와 합하는 것은 六律에 응하며, 齒·面·目は 七星에 응하고, 氣는 風에 응하며, 九竅와 관절 곧 三百六十五絡은 九野에 응하니 이것이 天人相應의 道이다.¹⁴⁾

[直譯]

구침이 어떻게 생성되어 무엇으로 인하여 명칭을 가지게 되었는가?

구침은 천지의 대수(일반적인 규율)이니, 一에서 시작하여 九에서 끝난다.

자연의 天·地·人·時·音·律·星·風·野의 규칙을 따르고, 그 數는 九九八十一로 황종의 數를 나타냈는데, 鍼은 그 數를 상응한다.

인체의 皮·肉·筋·脈·聲·陰陽·齒·氣·九竅關節도 천지의 규칙에 따른다.

[考察]

九鍼은 자연계의 일반적인 규율인 天地의 數를 따르는데, 一에서 시작하여 九에서 끝난다. 그러므로 第一은 天을 法받았고, 第二는 地를, 第三은 人을, 第四는 時를, 第五는 音을, 第六은 律을, 第七은 星을, 第八은 風을, 第九는 野를 法받았다고 한다. 다시 九를 아홉 번하면 八十一인데, 이는 황종의 數에 나타난다. 鍼의 數를 여기에 대응하고 사람의身形 또한 이에 응한다.¹⁵⁾

인체의 皮膚는 天, 肉은 地에, 血脈은 人에, 筋은 時에, 音聲은 五音에, 陰陽이 氣와 합하는 것은 六律에, 齒·面·目は 七星에, 氣는 風에, 九竅와 관절 곧 三百六十五絡은 九野에 각각 응하니 이것이 天人相應의 道이다.

¹²⁾ 楊維傑編, 『黃帝內經譯解(靈樞)·九鍼論 第七十八』, 앞의 책 : 574.

¹³⁾ 楊維傑編, 『黃帝內經譯解(靈樞)·九鍼論 第七十八』, 위의 책 : 574.

¹⁴⁾ 김성수, 李南九, 『靈樞 九鍼論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2003 : 15(1) : 147-93.

¹⁵⁾ 吳謙等編, 『醫宗金鑑·下篇』(의종금감 권 79), 앞의 책 : 2085.

¹⁶⁾ 김달호, 김중환, 주혜보주 『黃帝內經(靈樞)·九鍼論』, 서울 : 의성당, 2002 : 1350.



Fig. 1. Schematic drawing of shear needle.

그러므로 第一鍼은 皮, 二鍼은 肉에, 三鍼은 脈에, 四鍼은 筋에, 五鍼은 骨에 각각 응하며, 六鍼은 陰陽을 조절하고, 七鍼은 精氣를 補益하고, 八鍼은 風邪를 제거하고, 九鍼은 九竅를 通하게 하면서 三百六十五 竅(節)의 邪氣를 제거하니 이것이 바로 '九鍼에는 각기 주관하는 것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①)}

2. 九鍼主治法歌

九鍼主治法歌^{②)}는 九鍼의 종류별 주치를 명료하게 정리하여 운문(韻文) 또는 정제(整齊)된 글귀의 가결(歌訣)로 만든 내용이다.

1) 鑱鍼(참침)

· 鑱鍼主治法歌 : 鑱鍼即今箭頭鍼, 主刺皮膚邪肉侵, 毋令深入瀉陽氣, 邪正相安榮衛均

[字句解 및 校勘]

① 鑱鍼(참침: shear needle) : 구침의 일종. 침의 두부가 팽대하고, 말단이 예리하다. 熱病이나 피부병을 치료한다.

鑱鍼^{③)}은 巾鍼(건침)에서 법하였다. 巾鍼의 巾은 頭巾을 가리키는 말로, 형질 따위로 만들어 머리에 쓰는 물건을 총칭한다. 巾鍼은 크기가 작아서 비단 두건(巾帛)을 고정시킬 때 사용했던 것으로 鑱鍼의 형태와 비슷하게 생긴 古代의 鍼을 말한다. 참(鑱)은 예리하다는 뜻으로 끝이 꼬리처럼 길다. 그 길이가 一寸 六分이나 그 끝이 半寸이고, 나머지는 棒(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얇게 찌르되 깊게 찌르지 않게 함이다(Fig. 1).

② 箭頭鍼(전두침) : 화살촉과 같이 생긴 침

③ 榮衛(영위) : 榮氣와 衛氣. 수곡(水穀)에서



Fig. 2. Schematic drawing of round-pointed needle.

생성된 정기(精氣), 榮氣와 衛氣를 함께 부르는 말. 경락을 따라 순행하는 것으로, 위기(衛氣)는 단순히 氣로서 지칭되는 경우가 많고, 영혈(營血)은 血로서 지칭되는 경우가 많다.

[直譯]

鑱鍼은 곧 오늘날 화살촉과 같이 생긴 침으로 皮膚의 사기가 기육에 침범한 것을 주치한다. 깊이 刺入하지 않아 양기만 瀉하게 하고, 邪氣를 제거하고 正氣를 안정되게 길러 영위의 기를 고르게 한다.

[註]

鑱鍼은 깊이 자침하지 말아야 하는데 깊게 자침하면 양기를 상한다. 따라서 반드시 淺刺하여 邪氣를 물러나게 하고 正氣가 상하지 않게 하면 榮衛氣가 조화를 이루어 병이 낫는다.

[임상운용]

熱病에 먼저 피부가 아프고 코가 얼굴이 부어오르면 皮膚에 자침하는데, 구침 가운데 第一鍼인 참침으로 열병을 치료하는 59혈을 자침한다. 만일 코에 중기가 생기면 피부에 있는 肺의 兪穴을 자침해야지 心의 兪穴을 취해서는 안된다. 火는 心에 속하여 火가 心을 극하기 때문이다.

열병에 먼저 몸의 피부가 꺼칠하고 무력하고 겸하여 열이 나고 빈민하고 입술과 목이 마르면 혈액을 치료하는데, 구침가운데 第一鍼으로 59혈을 자침한다. [熱病先膚痛窒鼻充面, 取之皮, 以第一鍼, 五十九; 苛軫鼻, 索皮于肺, 不得索之火, 火者心也. 熱病先身瀉, 倚而熱, 煩惋, 乾唇口噙, 取之皮, 以第一鍼, 五十九] 『靈樞·熱病』^{④)}.

[東醫寶鑑]^{⑤)}

· 길이는 一寸 六分이며 침 끝이 크고 예리하다. 주로 양기를 사(瀉)한다[영추].

① 楊維傑編, 『黃帝內經譯解(素問)·鍼解篇』, 앞의 책, 1980 : 395.

② 吳謙等編, 『醫宗金鑑 下篇(의종금감 권 79)』, 앞의 책 : 2085-89.

③ 吳謙等編, 『醫宗金鑑 下篇(의종금감 권 79)』, 앞의 책 : 2085-89.

④ 楊維傑編, 『黃帝內經譯解(靈樞·熱病)·第二十二』, 앞의 책 : 574.

⑤ 許浚 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譯, 『對譯 東醫寶鑑』, 서울 : 법인문화사, 1999 : 2011.

· 너비는 5분이고 길이가 一寸 六分이며 침 끝이 크고 예리하다. 주로 머리에 열이 있는 것을 치료한다[역로].

· 침은 끝에서 1寸半 거리부터 점차 예리해지고, 침의 전체 길이는 一寸 六分이다. 깊이 찌를 수는 없지만 양기를 배출시키므로 頭身의 熱病에 사용한다. 돌침(砭)에서 진화 발전한 것으로 보며, 熱病放血에 사용되기도 한다.

2) 員鍼(원침)

· 員鍼主治法歌 : 員鍼取法於絮鍼, 主治邪氣侵肉分, 筒身卵鋒不傷正, 利導分肉邪自平

[字句解 및 校勘]

① 員鍼(원침 : round-pointed needle) : 구침의 일종. 침체는 圓筒形, 鍼先은 鷄卵形이다. 주로 穴位를 안마하고 근육의 질병을 치료할 때 사용한다. 원침(圓鍼)²²은 서침(絮鍼)에서 나왔으며 그 몸은 원통으로 되어 있고 그 길이가 一寸 六分이다. 몸통은 죽통처럼 곧고 그 끝은 계란처럼 둥그나 뾰족하다(Fig. 2).

② 絮鍼(서침) : 絮鍼은 古代 生活에서 사용하던 바늘로, 서(絮)는 솜을 가리킨다. 침의 넓이가 크고 옷을 꿰맬 때 사용한다. 버들강아지 모양을 의미한다고도 한다. 『靈樞·九鍼論』에 원침 봉침 모두 絮鍼을 따라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두 침 모두 굵고 圓筒形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본 딴 것이다.

③ 邪氣(사기) : 風·寒·暑·濕·燥·火의 六淫과 疫癘의 氣 등, 외부에서 침입하는 발병요인을 지칭한다. 外邪라고도 한다.

④ 筒身卵鋒(통신난봉) : 員鍼의 모양을 이르는 말. 침의 몸통이 대롱 같고, 침의 끝이 계란형이라는 의미.

⑤ 分肉(분육) : a. 근육을 말하는 것으로, 피하지방(白肉)과 근육조직(赤肉)을 합해서 이르는 말. b. 피하지방과 근육 사이, 근육과 근육 사이, 근육과 뼈 사이.

[直譯]

員鍼은 솜을 깎은 바늘을 본받았다. 사기가 분육에 침범한 것을 주치하고, 침의 몸통이 대롱 같고 끝이 계란 같이 정기를 상하지 않게 하며 分肉의 사기를 부드럽게 이끌어 스스로 회복시킨다.

[註]

원침은 곧 솜을 깎은 바늘이니, 사기가 분육 사이에 있는 것을 주로 치료한다. 대체로 침의 몸통이 대롱 같이 생겼고, 그 끝이 계란처럼 둥글어 분육을 잘 통하게 하여 사기가 행해지고, 기육에 있는 정기를 상하지 않게 한다.

[임상운용]

『녹험방(錄驗方)』에 이르길, 나력 치료는 모름지기 員鍼으로 침을 놓는데, 나력이 작으면 즉시 소실되고 큰 것은 익은 연 후에 놓이 나오게 하면 곧 낫는다. 하루걸러 한번 침을 놓는다. 『錄驗方』云, 療瘰癧, 唯須以員鍼取之, 小者即消, 大者即熟, 然後出膿便瘥, 隔日一鍼』 『醫心方·治療癰方 卷十六』²³

[고찰]

『靈樞』에 員鍼의 운용실례는 보이지 않는다. 이 내용은 『醫心方』에 나온 내용이다. 이 鍼具의 운용 규율로 볼 때 員利鍼의 적응증과 보다 가깝다.

[東醫寶鑑]²⁴

· 길이는 一寸 六分이고 침 끝이 달걀모양과 같이 생겼다. 분육의 사이를 스치기만 하고 기육(肌肉)을 상하지 않게 하며 분육에 몰린 기를 사한다[영추].

· 침 끝이 달걀모양과 같이 생겼는데 분육의 기병(氣病)에는 이 침을 쓰는 것이 좋다[역로].

· 分肉 사이에 邪氣가 있는 것을 주치한다. 그러므로 全身의 分肉에 병이 있을 때 員鍼을 사용한다.

3) 鍤鍼(시침)

· 鍤鍼主治法歌 : 鍤鍼之銳如黍粟, 恐其深入傷肌肉, 按脈勿陷以致氣, 刺之邪氣使獨出.

²² 吳謙等編, 『醫宗金鑑 下篇(의종금감 권 79)』, 앞의 책, 1996 : 2086.

²³ 黃龍祥, 『中國鍼灸學術大綱』, 앞의 책 : 1002~08.

²⁴ 許浚 著, 『對譯 東醫寶鑑』, 앞의 책, 1999 : 2011.

[字句解 및 校勘]

① 鍤鍼(시침 : spoon needle) : 구침의 일종. 침체는 크고 침침은 둔하다. 사기가 혈맥에 있는 것을 주치한다. 시침(鍤鍼)²⁵은 좁쌀처럼 그 끝이 뾰족하고 그 길이가 三寸半이다. 좁쌀처럼 둥글기도 하나 그 끝은 약간 뾰족하다. 이는 補法에 사용하기 이롭다(Fig. 3).

② 黍粟(서속) : 기장과 서속. 銳如黍粟 -서속같이 예리하다.

[直譯]

鍤鍼의 끝이 기장이나 좁쌀 같고 깊이 들어가 기육을 상할까 염려하며, 경맥을 안마하되 침이 기육을 뚫고 들어가지 않게 하여 정기를 소통시키고 사기만 빠져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註]

鍤鍼의 끝이 서속(黍粟)과 같이 예리하다. 사기가 혈맥 속에 있는 것을 주로 치료하나 깊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단지 맥을 짚어 정기가 오는 것을 관찰하고 맥 속의 사기만 빠져나오도록 한다. 만일 깊게 자침하여 기육에 이르게 되면 사기는 빠져나올지라도 기육의 정기는 반드시 상하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임상응용]

열병에 두통이 심하고, 관자놀이와 눈부위에 경련과 통증이 있고, 코피가 잘 나는 것은 熱이 上逆한 것이니, 구침 가운데 第三鍼인 鍤鍼을 사용한다.[熱病頭痛, 顛顛 目瘦, 脈痛, 善衄, 厥熱病也, 取



Fig. 3. Schematic drawing of spoon needle

²⁵ 吳謙等編. 『醫宗金鑑 下篇(의종금감 권 79)』. 앞의 책, 1996 : 2086.

²⁶ 楊維傑編. 『黃帝內經譯解(靈樞·熱病)·第二十二』. 앞의 책 : 574.

²⁷ 허준 저. 『對譯 東醫寶鑑』. 앞의 책, 1999 : 2011.

²⁸ 吳謙等編. 『醫宗金鑑 下篇(의종금감 권 79)』. 앞의 책 : 2087.

之以第三鍼](靈樞·熱病)²⁶

[고찰]

鍤鍼의 운용례는 『九鍼論』에 가까우며, 『九鍼十原』, 『官鍼』편과는 다르다.

[東醫寶鑑]²⁷

· 길이는 三寸 五分이고 침 끝이 기장이나 조의 꺼뜨리기와 같이 뾰족하다. 경맥을 눌러 들어가지 않게 하고 찢어서 경맥의 기를 제대로 돌게 한다 [역로].

· 경맥의 기가 허약한 데는 이 침을 쓰는 것이 좋다[역로].

주로 경맥을 눌러 氣를 도와 邪氣를 내보낸다.

4) 鋒鍼主治法歌

· 鋒鍼即今三稜名, 主刺癰邪時氣壅, 發於經絡痼不解, 瀉熱出血榮衛通.

[字句解 및 校勘]

① 鋒鍼(봉침 : lance needle) : 구침의 일종. 오늘날 사용하는 삼릉침을 말한다. 침체는 둥글고, 침침은 삼릉상을 나타내고, 칼날이 있다. 주로 응중, 열병, 급성위장염 등을 치료할 때 피하정맥 및 모세혈관을 자극할 때 사용한다.

鋒鍼²⁸은 鍤鍼(시침)에서 나왔으며 세 모퉁이가 칼날처럼 되어 있고 길이가 一寸 六分으로 위쪽이 八分, 아래쪽이 八分으로 나뉜다. 날카로운 모퉁이는 직각의 형태를 띠고 뾰족하여 熱을 瀉하고 피를 나게 하는데 사용한다(Fig. 4).

② 三稜(삼릉) : 삼릉침

③ 癰(류) : 혹, 종기, 종양.

④ 時氣(시기) : 時行戾(러)氣의 略稱으로 時行이라고도 한다. 유행중인 강열한 전염성을 가진 病邪를 말한다.

⑤ 壅(옹) : 막을, 막다. 막히다.

⑥ 痼(고) : 고질, 고질병, 오래된 병.



Fig. 4. Schematic drawing of lance needle

[直譯]

봉침은 오늘날 삼릉침이라고 하며, 종기나 時氣가 응체된 것을 주치한다. 경락에 발생하여 고질적으로 풀리지 않는 것에 열을 사하고 출혈시켜 영위를 통하게 한다.

[註]

봉침은 오늘날 삼릉침의 형태인바, 時氣의 온열이 뭉쳐진 邪氣에 주로 자침한다. 경락 속에 발생하여 고질적으로 응체되어 풀리지 않는 질환에 대해 삼릉침의 예리함을 이용하여 열을 풀고 출혈시킴으로써 경락을 개통시키고 영위를 조화시킴으로써 고질적으로 응체된 병이 낫는다.

[임상응용]

(1) 열병에 얼굴이 푸르며 腦가 아프고 手足이 떨리면 筋 사이에 자침하는데, 第四鍼(봉침)을 사용하며, 四逆(肝의 邪氣가 盛하여 四肢가 厥逆한 것²⁹)에도 자침한다. 근이 경련하고 눈에 백태가 끼면 마찬가지로 근병을 치료하는 肝의 兪穴을 취해야지 金의 兪穴을 취해서는 안된다. 금은 폐에 속하기 때문이다.

열병에 자주 놀라고 수족이 경련하고 광증이 나타나면 맥을 치료해야 하는데, 第四鍼(봉침)으로 신속하게 유여한 熱邪를 瀉한다. [熱病面靑腦痛, 手足躁, 取之筋間, 以第四鍼, 于四逆: 筋瞤目浸, 索筋于肝, 不得索之金, 金者肺也, 熱病數驚, 瘕癢而狂, 取之脈, 以第四鍼, 急寫有餘者] (『靈樞·熱病』)³⁰.

(2) 火鍼에 역시 鋒鍼을 이용하여 기름불에 침을 달구는데, 맹열하고 뜨겁게 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火鍼亦用鋒鍼, 以油火燒之, 務在

猛熱, 不熱即於人有損也] 『備急 千金要方·卷二十九』用鍼略例 第五.³¹

(3) 두통 혹은 머리가 무거우면... 足三里, 氣衝을 三稜鍼으로 출혈시킨다. [頭痛惑頭重... 三里 氣衝, 以三稜鍼出血] (『脾胃論』 卷中)³²

[고찰]

鋒鍼은 삼릉침의 일종으로 腫氣나 熱病을 치료하기 위해 刺絡이나 防血·瀉熱 요법의 도구로 사용하여왔다. 수·당 시기에는 火鍼의 침구로 사용해 온 근거가 있으며, 삼릉침이 활발히 사용되는 금원대 이후에는 瀉血시키는 침으로 사용하였다.

[東醫寶鑑]³³

· 길이는 一寸 六分이고 침날은 세모꼴이다. 고질병을 치료한다[역로].

· 열을 내리고 피를 빼어 고질병을 치료한다[역로].

· 鍼身이 대롱 같고 끝은 날카로우며 삼릉침과 같은 형태이다. 주로 癰熱에 이를 사용하여 出血한다. 『九鍼十二原篇』에서는 “세모서리가 칼처럼 날카로우서 癰疾病을 제거한다”고 하였다.

5) 鈹鍼主治法歌

· 鈹鍼之鋒末如劍, 主刺寒熱兩相搏, 合而爲癰膿已成, 大膿一瀉即時和

[字句解 및 校勘]

① 鈹鍼(피침: stiletto needle) : 구침의 일종. 침의 끝이 칼 모양이고, 양면에 칼날이 서 있다. 癰疽를 쪼고 膿을 제거한다. 鈹鍼³⁴은 칼처럼 생겼으며 그 넓이가 二分半이고 길이가 四寸이다. 이는 필시 칼처럼 생겨서 절개하는데 사용한다(Fig. 5).

② 相搏(상박) : 몸속의 정기(正氣)와 외부에서 침입한 사기(邪氣)가 서로 부딪히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邪氣)끼리 부딪혀 싸움.



Fig. 5. Schematic drawing of stiletto needle.

²⁹ 천성준, 노승석, 금경수. 『靈樞 熱病에 대한 연구』. 대한원전학회지, 2001 : 14(1) : 244.

³⁰ 楊維傑編, 『黃帝內經譯解(靈樞·熱病)·第二十二』. 서울 : 成輔社, 1980 : 574.

³¹ 孫思邈, 『備急 千金要方·卷二十九』用鍼略例 第五. 북경 : 인민위생출판사, 1994 : 518.

³² 黃龍祥, 『中國鍼灸學術大綱』. 앞의 책 : 1003~04. 허준 저, 『對譯 東醫寶鑑』. 앞의 책 : 2011.

³³ 허준 저, 『對譯 東醫寶鑑』. 앞의 책 : 2011.

³⁴ 吳謙等編, 『醫宗金鑑 下篇(의종금감 권 79)』. 앞의 책 : 2087.

③ 癰膿(옹농) : 옹 종이 끓은 것. 癰腫(옹종) : 부어오른 옹.

④ 癰(옹) : 기혈에 열독이 뭉쳐 있어서 통하지 못하여 생긴 외과적 병증.

[直譯]

피침은 끝이 칼과 같다. 주로 寒과 熱의 두 기운이 相搏하여 합쳐져 옹농(癰膿)이 이미 형성된 것에 자침하며, 큰 膿을 일시에 사하면 즉시 화평해진다.

[註]

피침은 칼과 같이 끝이 예리하고, 한열이 서로 다투거나 혹은 사기가 영위에 울결되어 막혀서 통하지 않아 옹저가 발생하는 것에 주로 자침한다. 이미 화농이 되었으면 이를 이용하여 열어주어 큰 농이 빠져나오게 한다. 큰 농(膿)이 빠져 나오면 음양이 화평해져 옹으로 인한 열이 낮는다.

[임상응용]

(1) 重舌의 환자에 대해 피침으로 舌下의 大筋을 자침하여 출혈시킨다. [重舌, 刺舌柱以鉞鍼也] 『靈樞·終始』³⁵.

(2) 水腫을 앓으면 먼저 臍下 三寸인 관원을 취하여 피침으로 자침하고, 자침한 후에는 침을 놓은 곳에 대나무 대롱을 꽂아 水氣를 배출시키고 이를 반복하여 水腫을 소진시킨다. 주의해야 할 것은 침 치료 할 때에 반드시 급히 이를 반복해야 하는데, 느리게 자침하면 번민한다. 급히 자침하면 환자가 안정되고, 이틀에 한번 자침하여 水腫이 소진되면 그친다. [徒疔, 先取環谷下三寸, 以鉞鍼鉞之, 已刺而笱之, 而內之, 入而復之, 以盡其疔, 必堅. 來緩則煩惋, 來急則安靜, 間日一刺之, 疔盡乃止] 『靈樞·四時氣』·第九³⁶

(3) 옹종을 터뜨릴 때 모두 피침을 이용하고, 종기의 대소에 걸맞게 해야 한다. [破癰腫皆用鉞鍼, 量腫之大小之宜也] 『醫心方·鍼例』卷二³⁷

[고찰]

鉞鍼은 癰疽를 찌고 膿을 제거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운용된 예는 瀉血하거나 腹水를 빼내는데 사용되었으며, 宋代 이후에서는 주로 외과질환인 破膿排膿에 사용하였다.

[東醫寶鑑]³⁸

- 길이는 四寸이고 너비는 二分半이며 끝은 칼날과 같다. 크게 끓은 것을 찌다[역로].
- 일명 파침(破鍼)이라고도 하며, 옹종(癰腫)을 찌어 피고름을 빼는 데 쓴다[역로].
- 피침은 끝이 칼처럼 되어 大膿을 제거한다. 넓이는 二分半이고, 길이는 4寸이다. 주로 大癰膿과 兩熱이 다투는 경우에 이를 사용한다.

6) 員利鉞主治法歌

· 員利鉞形尖如鼈, 主治虛邪客於經, 暴痺走注歷節病, 刺之經絡即時通

[字句解 및 校勘]

① 員利鉞(원리침 : round-sharp needle) : 구침의 일종. 침의 모양은 馬尾와 같고, 鍼尖은 둥글고 뾰족하다. 癰腫, 痺證 등을 치료한다. 六鍼調陰陽한다.

員利鉞³⁹은 이침(鼈鍼)에서 나왔으며 그 끝이 약간 크고 몸은 약간 작아 그 길이는 一寸 六分이다. 소털을 잡는 것처럼 하며 소털처럼 강하여 얇고 깊게 찌르는데 사용한다(Fig. 6).

② 鼈(리) : 꼬리. 털. 검정소나 말의 꼬리. 역시 고 꼬불꼬불한 털. 形尖如鼈란 원리침의 모양을 이르는 말로, 말의 꼬리와 같다는 말이다. 景岳은 “털 중에서도 強韌한 것을 鼈라 하니, 鼈를 취하여 본받았다고 하는 것은 침이 가느다라면서도 強健하여 약간 깊이 찌를 수 있는 것을 말한다.”⁴⁰고 하였다.



Fig. 6. Schematic drawing of round-sharp needle.

35 楊維傑編, 『黃帝內經譯解(靈樞·終始)·第九』, 앞의 책 : 97.

36 楊維傑編, 『黃帝內經譯解(靈樞·四時氣)·第十九』, 앞의 책 : 203.

37 黃龍祥, 『中國鍼灸學術大綱』, 앞의 책 : 1004.

38 허준 저, 『對譯 東醫寶鑑』, 앞의 책 : 2011, 2012.

39 吳謙等編, 『醫宗金鑑 下篇(의종금감 권 79)』, 앞의 책 : 2088.

40 김성수, 이남구, 『영추 구침론 연구』, 앞의 책 : 147-193.

③ 暴痺(폭비) : 暴病은 急性으로 일반적으로 비교적 빠르고 중한 병을 가리킨다. 痺病에는 風寒濕의 三痺가 있다. 暴痺는 급성으로 오는 痺病이라는 말이다.

④ 歷節病(역절병) : 역절(歷節)의병. 역절풍(歷節風)이라고 한다. 관절이 붓고, 심한 동통이 있어서 屈伸할 수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많은 경우 肝腎이 부족하고, 風寒濕의 邪氣를 感受하고, 이들의 邪氣가 관절에 침입하여, 오랫동안 누적하여 熱로 化하고, 氣血이 鬱滯하여 발생한다. 주된 증상은 관절의 통증이 심하고 進展이 빠르므로 白虎歷節風이라고도 한다. 急性류마티스성關節炎, 류마티스樣關節炎, 痛風 등의 증상과 유사하다.

[直譯]

員利鍼의 모양은 침끝이 마치 터럭과 같고, 허사가 경락에 침범하여 갑자기 痺證이 발생하여 유주하는 역절병을 주치하는데, 경락을 자침하면 즉시 낫는다.

[註]

員利鍼의 鍼尖 모양은 굵은 털과 같이 생겼고 둥글면서 예리하다. 허사가 경락에 침입하여 갑자기 痺症이 생기는 것과 진신으로 돌아다니는 歷節 동통 등의 병을 주치한다. 이것으로 자침하면 경락이 유통하여 허사가 스스로 물러난다.

[임상운용]

(1) 대퇴를 들 수 없을 경우 치료할 때 환자를 옆으로 누이고 치료하는데, 고관절의 環跳穴에 원리침으로 자침해야지 대침으로 자침해서는 안된다. [足脾不可舉, 側而取之, 在樞中, 以員利鍼, 大鍼不可刺] 『靈樞·厥病』第二十四^④.

(2) 슬관절통에는 犢鼻穴을 취하고 원리침으로 자침하며, 발침한 후에 조금 있다가 다시 자침한다. 원리침의 크기가 굵은 털과 같아 슬관절병을 치료하는데 망설일 필요가 없다. [膝中痛, 取犢鼻, 以員利鍼, 發而間之, 鍼大如毫, 刺膝無疑.] 『靈樞·雜病』第二十六^④

(3) 복부가 갑자기 창만하여 늘려도 창만이 줄지 않으면 수태양경의 絡穴을 취해야 하고 胃의 募穴과 척추 양쪽 각각 1촌 5분인 腎俞穴에 다섯 번 자침하는데, 원리침을 쓴다. [腹暴滿, 按之不下, 取手太陽經絡者胃之募也, 少陰俞去脊椎三寸傍五, 用員利鍼.] 『素問·通評虛實論篇』第二十八^④

[고찰]

원리침의 응용범위는 매우 넓다. 『靈樞』에서 말한 '暴病氣痛'에 국한되지 않고, 대체로 호침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증과 자침할 수 있는 부위에 원리침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東醫實鑑]^④

· 길이가 一寸 六分이고 굵기는 소꼬리털 같고 둥글며 예리하고 침날의 가운데는 약간 굵다. 갑자기 생긴 사기[暴氣]를 없앤다[역로].

· 침 끝은 털끝같이 가늘고 둥글며 잘 돌므로 음양을 고르게 하고 갑자기 생긴 사기를 없앤다[역로].

· 毫(이)는 강한 털을 의미하니, 원리침이 이를 본뜬다함은 가늘고 튼튼함을 이용해서 다소 깊게 들어갈 수 있는 鍼임을 의미한다. 원리침은 주로 癰腫과 痺證을 치료한다.

7) 毫鍼主治法歌

· 毫鍼主治虛痺纏, 養正除邪在徐緩, 寒熱痛痺浮淺疾, 靜入徐出邪正安

[字句解 및 校勘]

① 毫鍼(호침 : filiform needle) : 구침의 일종.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침이다. 七鍼益精한다.

호침(毫鍼)^⑤은 그 끝이 모기의 입처럼 뾰족하다. 붓을 잡는 것처럼 잡고 길이는 一寸 六分이다. 그 끝은 반듯이 모기의 입처럼 뾰족해야하며 약간 천천히 꽂고 오래 둔다(Fig. 7).

④ 楊維傑編, 『黃帝內經譯解(靈樞·厥病)·第二十四』, 앞의 책 : 240.

④ 楊維傑編, 『黃帝內經譯解(靈樞·雜病)·第二十六』, 앞의 책 : 245.

④ 楊維傑編, 『黃帝內經譯解(素問·通評虛實論篇)·第二十八』, 앞의 책 : 242.

④ 허준 저, 『對譯 東醫實鑑』, 앞의 책 : 2012.

⑤ 吳謙等編, 『醫宗金鑑 下篇(의종금감 권 79)』, 앞의 책 : 2088.

② 虛痺(허비) : 질병이 오래도록 낫지 않아 기혈(氣血)이 손상되고 간신(肝腎)이 쇠약해져 근골이 영양을 받지 못해 나타나는痺證의 일종.

③ 纏(전) : 얽을, 얽힐, 감을, 감길, 묶을, 새끼 줄, 줄, 건인. 끌. 두르다. 띠를 두르다. 끈을 매다

④ 養正除邪(양정제사) : 정기를 기르고 사기를 제거한다.

⑤ 痛痺(통비) : 風寒濕 三痺 중에 寒痺를 이르는 말. 風痺는 周痺, 濕痺는 着痺라고 한다. 痛痺에 대한 임상상의 표현은 신체가 나른하고 아프며, 동통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고, 寒을 만나면 통증이 增加하고 熱을 만나면 통증이 減少한다. <素問·痺論>에는 “寒氣勝者 爲痛痺”(寒氣가 강할 때는 痛痺가 된다)라고 하였다.

[直譯]

毫鍼은 虛痺를 주치하며, 정기를 기르고 사기를 물리치는 것은 자침의 徐緩에 있는데, 한열과 痛痺와 얽은 곳에 있는 질병은 조용히 자입하고 천천히 발침하면 사기가 물러나고 정기가 안정된다.

[註]

毫鍼은 가는 털을 본받았으므로 이렇게 이름 하였다. 사기가 경락에 침범하여 통비를 발생시키는 것을 주로 자침하는데, 사기가 가볍고 얽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무릇 정기가 부족한 사람에게 이 침으로 자침하는데, 가볍게 찔러 서서히 사기를 흠어지게 하고 잠시 유침하여 정기를 느슨하게 기르면 한사로 인한 통비가 얽은 낙맥에 있는 것이 모두 회복된다.

[임상응용]

(1) 衛氣가 脛部에 있을 경우에는 氣衝과 承山 및 踝上部 이하 등에 이른다. 이를 다스릴 경우에는 毫鍼을 사용하되, 반드시 바로 누른 채로 오래 있다가 손에 반응하면 비로소 자침하여 이를 보양한다. [氣在脛者, 止之于氣街, 與承山、踝上以下, 取



Fig. 7. Schematic drawing of filiform needle.

此者, 用毫鍼, 必先按而在久, 應於手乃刺而予之]([靈樞·衛氣』第五十二)⁴⁶.

(2) 사기가 족소양의 낙맥에 침범하면 環跳부위에 동통을 일으켜 대퇴를 들 수 없게 된다. 이럴 때에는 호침으로 환도를 자침한다. 寒이 심하면 오랫동안 유침한다. 달이 차고 기우는 날짜로 자침의 횟수를 결정하여 침을 놓으면 즉시 낫는다. [邪客於足少陽之絡, 令人留於樞中痛, 髀不可舉, 刺樞中以毫鍼, 寒則久留鍼, 以月死生爲數, 立已]([素問·繆刺論』第六十三)⁴⁷.

[고찰]

毫鍼은 오늘날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침이다. 繆刺論에 적힌 병증은 『靈樞·厥病』에서는 員利鍼으로 자침하였는데, 이는 毫鍼과 員利鍼의 형상 적응병증이 모두 가까움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원리침·장침·호침 등 3종의 침은 바로 현대의 침구 임상에서 ‘호침’의 범주에 속한다.

[東醫寶鑑]⁴⁸

· 길이는 一寸 六分이고 끝은 모기나 등에의 주둥이같이 날카로우며 천천히 놓고 오래 꽂아 둔다. 통비(痛痺)를 치료한다[역로].

· 침 끝은 모기나 등에의 주둥이 같은데 경락을 고르게 하고 통비를 없앤다[역로].

· 서서히 침을 刺入하고, 약간 오래 유침해야 하니 이렇게 하면 정기가 충실해지고 邪氣는 消散하여 眞氣가 회복된다. 病이 絡脈에 있는 寒熱과 痛痺를 주치한다.

8) 長鍼主治法歌

· 長鍼主治虛邪傷, 內舍骨解節腠殃, 欲取深邪除遠痺, 刺法得宜始可康

[字句解 및 校勘]

① 長鍼(장침 : long needle) : 구침의 일종. 침체는 비교적 길고[일반적으로 6~7촌(20~23 cm)].

⁴⁶ 楊維傑編, 『黃帝內經譯解(靈樞·衛氣)』, 앞의 책 : 390.

⁴⁷ 楊維傑編, 『黃帝內經譯解(素問·繆刺論)』, 앞의 책 : 476.

⁴⁸ 허준 저, 『對譯 東醫寶鑑』, 앞의 책 :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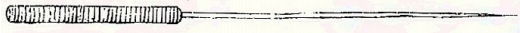


Fig. 8. Schematic drawing of long needle.

深刺에 사용한다. 오늘날의 環跳鍼이라고 하며, 좌골신경통 등에 사용한다. 八鍼除風한다.

장침(長鍼)⁴⁹은 기침(綦鍼)에서 나왔으며 길이가 七寸에 이른다. 깊게 찔러 사기를 없애고 오래된 비증(痺症)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Fig. 8).

② 綦鍼(기침) : 校釋은 “綦鍼은 옷을 기울 때 사용하는 長鍼이다. 說文金部에 ‘鍼은 綦鍼이다.’고 하였고, 管子輕重乙에 ‘여자는 반드시 一刀, 一錐, 一合, 一鍼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고 하였는데 房注에 ‘鍼은 長鍼이다’고 하였다”⁵⁰고 하였다.

③ 虛邪(허사) : 병을 들게 하는 사기의 통칭. 사기가 虛를 틈타서 침입하기 때문에 이르는 말. 《素問·上古天真論》에는 “虛邪賊風, 避之有時”(虛邪賊風은 이것을 피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였다.

④ 骨解(골해) : 관절,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된 곳.

⑤ 筋腠(질주) : 뼈마디 사이.

⑥ 深邪(심사) : 虛邪가 깊이 들어간 것

⑦ 遠痺(원비) : <영추·구침십이원편>에 나와 있다. 날이 지나도 낫지 않는 痺證을 가리킨다. 慢性關節炎의 증상.

[直譯]

長鍼은 허사에 상하여 관절과 節奏理에 사기가 머물고 있는 것을 주치한다. 깊이 있는 사기와 遠痺를 제거할 때 장침의 침법을 이용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

[註]

長鍼은 오늘날의 環跳鍼이다. 허사가 깊이 침입하여 관절과 腰脊과 뼈마디 사이에 있는 것을 주치한다. 무릎 깊고 멀리 있는 몸통의 사기를 취하려면 반드시 침의 몸통이 길고 끝이 예리한 침으로 법도에 따라 자침하면 깊이 숨어 있는 사기를 몰아낼 수 있고 遠痺도 풀려 건강해지게 된다.

[임상운용]

(1) 내부가 폐색되어 소변을 볼 수 없으면 족소음신경맥·족태양방광경맥과 장강혈(臍上)을 장침으로 자침한다.[內閉不得洩, 刺足少陰太陽與臍上以長鍼](『靈樞·癲狂』第二十二)⁵¹

(2) 대변불통 치료에 제하 1촌5분에 있는 임맥의 기해혈을 자침한다. 장침을 이용하여 8분 자하여 환자로 하여금 급히 변의를 3~5회 느끼게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治大便不通, 刺任脈氣海一穴, 在臍下一寸五分, 用長鍼入八分, 令病人覺急便三五次爲度]⁵²

[고찰]

長鍼은 침의 길이가 7촌으로, 오늘날의 環跳鍼이다. 하복부혈이나 환도혈 등 병사의 부위가 비교적 깊은 곳에 주로 사용한다.

[東醫寶鑑]⁵³

· 길이는 七寸이고 침 끝이 예리하다. 오래된 비증을 치료한다[역로].

· 침 끝이 예리하므로 비증이 몸의 깊은 곳과 관절, 허리등뼈에 몰린 것을 없앤다[역로].

9) 大鍼主治法歌

大鍼主刺周身病, 淫邪溢於肌體中, 爲風爲水關節痺, 關節一利大氣通

[字句解 및 校勘]

① 大鍼(대침 : big needle) : 구침의 일종. 침체는 약간 굵고, 침침은 약간 등글다. 전신 水腫 및 복중의 癥瘕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 九鍼通九竅한다.

大鍼⁵⁴은 鋒鍼에서 법하였으므로, 그 봉은 약간 등

49 吳謙等編, 『醫宗金鑑 下篇(의종금감 권 79)』, 앞의 책 : 2088,2089.
50 김성수, 이남구, 『靈樞 九鍼論 研究』, 앞의 책 : 147-193.
51 郭霽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서울 : 의성당, 1993 : 207.
52 黃龍祥, 『中國鍼灸學術大綱』, 앞의 책 : 1007.
53 허준 저, 『對譯 東醫寶鑑』, 앞의 책 : 2012.
54 吳謙等編, 『醫宗金鑑 下篇(의종금감 권 79)』, 앞의 책 : 2089.



Fig. 9. Schematic drawing of big needle.

글다. 길이는 四寸이며 끝이 몽둥이처럼 생기고 굵고 커, 막힌 것을 풀어 九竅를 통하게 한다(Fig. 9).

- ② 周身病(주신병) : 전신병
- ③ 淫邪(음사) : 병을 일으키는 좋지 못한 기운.
- ④ 溢(일) : 가득 참. 넘치다. 넘쳐흐름. 정도를 지나침.

[直譯]

大鍼은 전신의 병으로 邪氣가 肌肉에 넘쳐 風病이나 水病이 되어 관절에 痺證이 생기는 것을 주치하는데, 大氣가 關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다스린다.

[註]

大鍼은 전신에 사기가 침범하여 風病 혹은 水病이 되어 기육에 넘쳐서 머물러 관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막혀서 병이 될 경우, 이것으로 자침하여 大氣를 通하게 하면 관절이 원활하여진다. 邪氣가 경락에 막힌 것과 風邪의 腫毒이 肌體를 상하게 한 것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

[임상응용]

· 심복통이 발작할 때 아파서 소리를 못 지르고, 배에 혹 같은 것이 몽쳐 위아래로 왕래하고 발작하다가 멈추기도 하며 뱃속에 熱이 있어 渴症이 나고 침을 흘리는 것은 회충과 같은 병증이 있다는 표현이다. 손으로 몽친 것을 단단히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大鍼으로 찔러 오래 잡고 있다가 충이 움직이지 않으면 拔鍼한다. [心腸痛, 懷作痛, 腫聚, 往來上下行, 痛有休止, 腹熱喜渴涎出者, 是蛟蛭也. 以手聚按而堅持之, 無令得移, 以大鍼刺之, 久持之, 蟲不動, 乃出鍼也](『靈樞·厥病』第二十四)⁵⁵.

⁵⁵ 郭靄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앞의 책 : 227-28.
⁵⁶ 허준 저. 『新編 對譯 東醫寶鑑』침구편. 서울 : 법인문화사. 2005 : 3647.
⁵⁷ 黃龍祥. 『中國鍼灸學術大綱』. 앞의 책 : 1008.
⁵⁸ 허준 저. 『新編 對譯 東醫寶鑑』침구편. 앞의 책. 2005 : 3647.

[고찰]

대침은 전신 水腫 및 腹中 癥瘕 등의 치료에 사용하였고, 침체의 길이가 길다는 鍼具의 특징상 화침으로 발전하였다. 『동의보감』⁵⁶에는 쉬침(焠鍼)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쉬(焠)는 “담금질하다, 태우다, 불에 태우다”는 뜻을 지닌다. 『鍼經摘英集』에서는 대침을 火鍼의 침구로 사용하였고, 元代 이후에는 대부분 이 설에 좇았다⁵⁷고 한 바, 이는 大鍼이 길이가 긴 침체의 특징상 후에 火鍼의 도구로 발전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東醫寶鑑]⁵⁸

- 길이는 四寸이고 끝은 못과 같으며 침날은 약간 둥글어서 관절에 쌓인 물을 제거한다[역로].
- 쉬침(焠鍼)이라고도 하는데, 허풍(虛風)이 관절과 피부 사이에 있는 것을 치료한다[역로].

IV. 결 론

구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九鍼歌가 수록된 『醫宗金鑑』의 「九鍼原始法歌」, 「九鍼主治法歌」에 대한 문헌을 譯釋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九鍼이란 한의학의 전통적 의료기구로서, 다양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 형태와 용도를 달리한 鍼具의 총칭이다. 九鍼은 천지자연의 규율인 天地의 大數에 근거한다.
2. 九鍼歌는 九鍼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도록 요점을 간추려서 노래 형식으로 만든 가설(歌訣)이다. 九鍼原始法歌는 구침이 나오게 된 근원 곧 구성 원리에 대해 설명하였고, 九鍼主治法歌는 九鍼의 특징과 종류별 주치영역을 명료하게 정리하여 가설(歌訣)로 만들었다.
3. 鑿鍼은 곧 오늘날 화살촉과 같이 생긴 침으로 피부의 사기가 기육에 침범한 것을 주치하며, 깊이 刺入하여 영기를 瀉하게 하지 않게 하고, 邪氣와 正氣를 안정시키고 영위의 기를 고르게 해준다.
4. 員鍼은 숨을 깎는 바늘을 본받았는 바, 사기가 분육에 침범한 것을 주치하고, 침의 몸통이 대

롱 같고 끝이 계란 같이 정기를 상하지 않게 하며 分肉의 사기를 부드럽게 이끌어 스스로 회복시킨다.

5. 鍤鍼은 그 끝이 기장이나 좁쌀 같고 깊이 들어가 기육을 상할까 염려하며, 경맥을 안마하되 침이 기육을 뚫고 들어가지 않게 하여 정기를 소통시키고 사기만 빠져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6. 鋒鍼은 오늘날 삼릉침이라고 하며, 종기나 時氣가 응체된 것을 주치한다. 경락에 발생하여 고질적으로 풀리지 않는 것에 열을 사하고 출혈시켜 영위를 통하게 한다.
7. 鈹鍼은 끝이 칼과 같아서, 주로 寒과 熱의 두 기운이 相搏하여 합쳐져 癰(癰膿)이 이미 형성된 것에 자침하며, 큰 膿을 일시에 사하면 즉시 화평해진다.
8. 員利鍼의 모양은 침끝이 마치 터럭과 같고, 허사가 경락에 침범하여 갑자기 痺證이 발생하여 유주하는 역절병을 주치하는데, 경락을 자침하면 즉시 낫는다.
9. 毫鍼은 虛痺를 주치하며, 정기를 기르고 사기를 물리치는 것은 자침의 徐緩에 있는데, 한열과 痛痺와 얽은 곳에 있는 질병은 조용히 자입하고 천천히 발침하면 사기가 물러나고 정기가 안정된다.
10. 長鍼은 허사에 상하여 관절과 節奏理에 사기가 머물고 있는 것을 주치한다. 깊이 있는 사기와 遠痺를 제거할 때 장침의 침법을 이용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
11. 大鍼은 전신의 병으로 邪氣가 肌肉에 넘쳐 風病이나 水病이 되어 관절에 痺證이 생기는 것을 주치하는데, 大氣가 關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다스린다.

이상의 결과 九鍼은 천지자연의 기본원리를 인체의 변화현상에 따라 적절히 조화를 이룬 한의학의 전통적 의료기구라 할 수 있으며, 九鍼歌는 이러한 구침의 구성 원리와 주치영역을 노래의 형식을 빌어 간명하게 정리해 줌으로써 구침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었다. 九鍼이 가지는 특성으로 볼 때 향후 구침의 원리에 근거한 더욱 다양한 치료도구의 개발·활용이 한의학의 발전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감사의 글

This paper was supported by Wonkwang University in 2011(to Sohn IC).

참고문헌

1. Yang WJ. Huangdineijing(Suwen). Seoul : Seongbosa. 1980 : 392, 395.
2. Yang WJ. Huangdineijing(Lingshu). Seoul : Seongbosa. 1980 : 239, 574.
3. Kim DH, Kim JH. Huangdineijing(Suwen, the last volume). Seoul : Euisengdang. 2002 : 80-91.
4. Kim DH, Kim JH. Huangdineijing(Lingshu). Seoul : Euisengdang. 2002 : 1350.
5. Wu Q. Yizhongjinjian The volume one-two. Beijing : Renminweishengchupanshe. 1996 : 2085-9.
6. Shi HT. Zhongyilinchuang-xinjiuzhenliaofa. Beijing : Renminweishengchupanshe. 2000 : 243-340.
7. Heo J. Dongeuibogam. Seoul : Bupin Publishes. 1999 : 2011, 2012.
8. Kim SS, Lee NG. The Study on Nine kind needles of Huangdineijing(Lingshu). The Korean Society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2002 ; 15(1) : 147-93.
9. Huang RX. Zhongguozhenjiuxeushushidagang-gujinzhenjutu. Seoul : Bupin Publishes. 2005 : 996-1012.
10. Zhang JB. Leijing the volume two. Seoul : DS-print Total Printing Group. 1990 : 418-24.
11. Balk YS, Kim DH. A study on the Gu-chim and Guan-chim of 『Hwangje-Naegyong』.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and Medical History. 2008 ; 21(2) : 101-12.

12. Kim SY, Shin CH, Park K. A Study on the Gu Chin Sib Yi Won of the Young Chu.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and Medical History. 2001 ; 14(1) : 283-320.
13. Jeong KJ, Cho HS, Yun JH. The study of the usage of Jiu-Zhen. The Journal of Korea Academy Medical Gi-Gong. 1998 ; 2(2) : 185-99.
14. Shon IC, Kim YL, Ahn SH, Kim JH. Study on the poems of nine needles in Uijonggeumgam. The Journal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2010 ; 18(2) : 119-34.
15. Shon IC, Kwon OS, Kim YL, Ahn SH, Kim JH. Literature Study on the Conformation and Application of Nine Classical Needles.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2011 ; 28(1) : 157-69.